

1.글로벌 증시

\* <뉴욕 마감> 다우 '최고치 행진' 지속...엇갈린 실적에 S&P·나스닥 ↓

- IMF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여파

- 존슨앤존슨, 올해 2분기 주당 순익 & 매출이 월가 예측치 상회

- 전날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해 주가 급락...기술주 부진

-美 부동산 지표 호조

6월 주택착공(MoM) -1.7% → 4.8% (예상:0.5%)...9개월 연속 100만건 웃돌아

6월 건축허가(MoM) 0.7% → 1.5% (예상:0.6%)

\* <유럽 마감> 유럽증시, 엇갈린 실적·경기지표에 '혼조'...英만 '강보합'

- 독일의 7월 경기기대지수가 브렉시트 여파로 2012년 이후 최저치 기록

7월 ZEW경기신뢰지수 19.2 → -6.8 (예상:9.0)

\* <상하이 마감> 투자심리 부진에 하락...0.23% ↓

\* <도쿄 마감> BOJ 부양책 기대로 6일째 상승...1.37% ↑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예상아 힘을 받는 상황.

DOW30 18559.01 (+0.14%)...옛새째 사상 최고치 행진 & 8일 연속 상승세

NASDAQ 5036.37 (-0.38%)

S&P500 2163.78 (-0.14%)

NIKKEI225 16723.31 (+1.37%)

SHANGHAI 3036.60 (-0.23%)

FTSE100 6697.37 (+0.03%)

DAX30 9981.24 (-0.81%)

CAC40 4330.13 (-0.63%)

## 2.글로벌 채권

\* <뉴욕 채권> 국채가, 뉴욕증시 하락에 상승

- 국채가격, 유럽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독일의 경기 우려와 뉴욕증시 하락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져 상승 출발
- 미 주택시장 지표 호조에 오름폭 줄여

### [미국]

2y 0.69% (+0.01bp)

10y 1.55% (-2.9bp)

30y 2.27% (-2.8bp)

### [기타 10Y물]

영국 0.80% (-2.5bp)

독일 -0.03% (-1.4bp)

프랑스 0.20% (-1.0bp)

이탈리아 1.23% (-1.6bp)

스페인 1.18% (+3.7bp)

그리스 7.71% (+0.0bp)

3.글로벌 환시

\* 달러, 경기지표 호조에 금리인상 가능성 ↑ '4개월 최고'

\* 소프트뱅크 英 ARM 인수, 엔 약세 효과 제한적 <日經>

유로/달러	1.1019	(-0.0056)
유로/엔	116.91	(-0.66)
달러/엔	106.11	(-0.03)
달러/위안	6.6971	(+0.0010)
파운드/달러	1.31067	(-0.01451)
NDF	1142.00 / 1142.50...6.30원 상승	

4.글로벌 상품

\* <국제 유가> 미 원유재고 발표 앞두고 1.3% 하락

\* <국제 금값> 위험거래 약화로 0.2% 상승

WTI	44.65	(-1.30%)...2개월 최저
COMEX금	1332.30	(+0.20%)

**5. 전일 국내 지표**

코스피 2016.89 (-0.21%)

코스닥 702.44 (+0.22%)

원/달러 1135.50, 전일(1136.40원)

\*KTB: 시가 111.10 / 종가 111.09

\*LKT: 시가 133.45 / 종가 133.25

**6. 전일 국내 주요 금리:** 19일 국고채 금리는 하락 출발. 오전 내내 강세를 보이던 채권 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 3년 매수, 10년 매도에 나서며 변동성을 키움. 시장은 금리의 방향성 보다는 수익률 커브 스티프닝에 주목하는 모습.

3y 1.227% (-0.2bp)

5y 1.254% (+0.1bp)

10y 1.426% (+1.1bp)

CD 1.360% (0bp)

**7. 본드-스왑 스프레드**

3y -2.7bp (-0.1bp)

5y -4.2bp (-0.1bp)

10y -15.1bp (-0.6bp)

**8. IRS/CRS 동향:** IRS 시장은 채권 시장에 연동. 오전 내내 강세를 보이던 IRS 시장은 선물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험권으로 돌아왔고, 커브는 베어스텝. 주로 중장기물 위주로 거래가 많았음. CRS 시장은 제한된 변동폭 내에서 1년과 2

년물 위주로 거래.

**\*IRS 금리**

1Y 1.2450% (-0.25bp)

2Y 1.2025% (-0.50bp)

3Y 1.2000% (-0.25bp)

5Y 1.2125% (0bp)

7Y 1.2275% (+0.25bp)

10Y 1.2750% (+0.50bp)

1\*2Y -4.25 (-0.25bp)

2\*3Y -0.25 (+0.25bp)

2\*5Y 1.00 (+0.50bp)

3\*5Y 1.25 (+0.25bp)

5\*7Y 1.50 (+0.25bp)

5\*10Y 6.25 (+0.50bp)

## 9. 주요뉴스

[해외]

\* IMF,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 3.2%→3.1% 하향 조정

-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3.5%→3.4%

- 브렉시트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유럽 은행권의 불안 심화와 중국의 과잉부채 문제 등이 주된 위험 요인.

\* ECB, BMW에서 슬로베니아 회사채까지 매입

- 독일 자동차 BMW에서 슬로베니아의 에너지 기업까지 다양한 회사채를 매입.

- 정확한 개별 회사채 보유 규모와 매입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보유한 투자등급 회사채 규모가 100억유로 넘어서 <다우존스>

\* '브렉시트'로 현금 비중 증가...부정적 경제 전망도 잇따라

- 브렉시트 우려로 펀드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15년래 최고 수준 기록 <WSJ>

\* 피치 "中 신용, GDP 대비 253%로 증가 예상"

- 중국의 신용이 은행권의 악성 부채 해소에 걸림돌이 될 것.

- 자체 개발한 중국 신용 지표인 피치 조정 사회용자 총량(FATSF)이 작년 말 GDP의 243%에 달했으며, 올해 말에는 253%로 증가 전망.

[국내]

\* '갈 곳 없어 떠도는 돈'...단기 부동산자금 950조 돌파

- 저금리 장기화로 단기성 상품에만 자금 몰려

\* 이주열 "통화정책 한계...정책조합·국제공조 필요"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국 경제상황과 정책 변화가 소규모 개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

\* 국금센터 "韓 원화, 브렉시트 이후 통화가치 회복"

\* 韓, 2분기 연속 外人 채권자금 이탈...42억달러

\* 변재일 정책위의장 "청년실업 공공부문이 나서야"

**\*\*금일 예정 지표\*\***

유로존-7월 소비자신뢰지수 (이전:-7.3, 예상:-8.0)

독일-6월 PPI(MoM) (이전:0.4%, 예상:0.2%)